

조선후기 한문단편에 나타난 농업과 농업인

- 경농(經農)과 치농(治農)을 중심으로

김수연*

<차 례>

1. 들어가며 : 생업/직업으로서의 농업·농업인
2. 한문단편에 나타난 조선후기 농업인의 모습
3. 조선후기의 농업상 : 경농(經農)과 치농(治農)
4. 나가며 : 조선후기 '경영형부농'론의 재론 가능성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문단편에 나타난 조선후기 농업상과 농업인의 삶을 고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서 등이 포착하지 못한 농업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문헌텍스트가 일정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문단편에 등장하는 농업인은 대체로 양반출신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출신계층이 아닌 종사계층으로서의 농업인의 등장을 발견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생업 즉 직업은 출신계층이 아닌 종사계층에 초점을 둔 것이다. 출신과 직업을 구분하는 인식은 오늘날에는 매우 자연스럽다. 그동안 사농공상이라는 계층구분에 귀속되어 출신계층과 종사계층을 일치해 보려했던 경향에 대해, 한문단편의 농업인은 출신계층과 종사계층이 구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관점에서의 '직업의 탄생'을 예고한다. 한문단편은 농업인의 행적을 문학적으로 기록하지만, 그들이 지닌 삶의 자세에 대한 진실을 보여준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 시대의 농업상은 역사서나 철학서·농서에 기록된 농업상과는 일정 겹치면서도 전혀 다른 측면을 담아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한문단편의 농업인을 경영형부농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각편에서 묘사되는 농업인의 실상은 경영형 부농보다는 소규모 자작농에 가깝다. 작품의 전반부는 경농(經農) 과정을 부각하고, 후반부는 원래적 치농(治農) 개념이 강조된

* 한국학중앙연구원

농업인의 삶이 드러난다. 기존연구는 이중 전반부에 무게를 두고, 조선후기의 몰락 양반이 농업에 종사하게 된 상황과 농서 등에 기록된 향상된 기술력을 임의로 연결하여 한문단편의 농업인을 경영형부농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는 농업사 연구에서 한때 유행했던 경영형 부농론에 일정 견인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의 농업사 연구는 경영형 부농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조선후기가 농업 집약화와 경작토지의 영세권집화를 특징으로 하는 소농사회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문단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객관적으로 독해하고 이해한다면, 작품이 그리고 있는 농업인의 실상 또한 소규모의 토지 소유자의 치농임을 알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한문단편의 농업인을 경영형부농으로 보았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주제어 한문단편, 농업, 농업인, 경영형부농, 경농(經農), 치농(治農)

1. 들어가며 : 생업/직업으로서의 농업·농업인

문학연구자가 ‘농업’을 연구의 키워드로 삼는 것은 다소 낯설다. 농업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생활사 혹은 농업사)이나 경제철학(실학) 및 농업학 측면에서 다루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이러한 기존관념에 익숙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사서나 경제서·농서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농업에 대한 연구성과에 문학텍스트를 더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필자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본고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으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농서 등의 자료가 포착하지 못한 농업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 문학텍스트가 일정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문학연구자가 문외한의 입장에서 일람한 그간의 농업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농업정책,¹⁾ 농서편찬,²⁾ 농업기술의 특징과 변화, 농업경영관³⁾ 등

1) 염정섭, 『세종대 농정책의 전개와 의의』, 『예산학보』 29; 『18세기 후반 정조대 농정책

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농업사의 커다란 흐름을 가늠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농서에 기록된 기술의 혁신과 농업경영관 그리고 농업정책과 토지(소유)제 속에서 살아 숨 쉬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종사했던 생업/직업으로서의 농업상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실제 농경에 참여했던 한 양반 가문에 대한 연구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⁴⁾ 이 또한 전주(田主)와 지주(地主)의 구별, 작개경작(作介耕作)과 노비신역(奴婢身役), 회환(回換)농법과 이양법 보급, 영세지주와 대지주의 공존, 공동소유전답과 종가형 지주의 관계, 지력약탈적 집약화의 작은 근거, 문중 지대제의 낮은 지대량 등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어,⁵⁾ 당시 농업제도나 농업기술환경을 설명하는 사례를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태적·기술적(記述的) 연구라는 측면에서 앞의 성과들과 그 성격이 같다.

그렇다면 문학은 우리에게 당대 농업인의 삶과 그들이 종사한 농업상에 대해 기존 연구와 어떻게 다른 층위의 읽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조선조 기록문학의 특징상⁶⁾ 한문단편에 남겨진 농업인은 대개 양반출신

의 전개, 『한국문화』32; 송양섭, 『조선후기 문헌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최윤오, 『조선 후기 토지소유권의 발달과 지주제』, 해안, 2006.

- 2) 농서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구성체제와 특징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엄정섭, 『18세기 초중반 <산림경제>와 <중보산림경제>의 편찬 의의-「치농」을 중심으로』, 『규장각』25; 『18세기말 정조의 <농서대전> 편찬 추진과 의의』, 『한국사연구』, 한국사연구회, 2001.
- 3) 안대회, 『임원경제지를 통해 본 서유구의 이용후생학』, 『조선후기 달성서씨가의 학풍과 실학』, 한국실학학회, 2006; 김용섭, 『18,9세기의 농업실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 『대동문화연구』9, 1972; 『정약용과 서유구의 농업개혁론』, 『창작과비평』29, 창비; 유봉학, 『서유구의 학문과 농업정책론』, 『규장각』9, 1985.
- 4)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 5) 엄정섭, 『조선시대 양반가 농업경영에 대한 풍성한 볼거리와 해석』, 『역사와 현실』56.
- 6) 조선조 기록문학은 대개 식자층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한문을 표기수단으로

이다. 때문에 우리는 출신계층이 아닌 종사계층으로서의 농업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기실 엄밀한 의미에서 생업 즉 직업이란 출신계층이 아닌 종사계층에 초점을 둔 것이다. 출신과 직업을 구분하는 인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후기 농업인에 대해서는 막연히 사·농·공·상이라는 계층구분에 일괄 귀속시켜, 출신계층과 종사계층을 일치해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한문단편은 출신계층과 종사계층이 구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관점에서의 ‘직업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문단편 속 인물들은 그 신분이 한때 양반이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생업인·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이다. 그들은 직접 농업이라는 생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지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자신들이 꿈꾼 바를 이루어나간다. 한문단편은 그들의 행적을 기술적(記述的)이 아닌 문학적으로 기록하지만, 농업인으로서 그들이 지닌 삶의 자세는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다. 농업인의 가치관과 총체적 삶이 그 시대의 농업상이라 한다면, 한문단편이 보여주는 농업상은 역사서나 철학서·농서에 기록된 그것과는 일정 겹치면서도 전혀 다른 측면을 담아낼 것이다. 농서와 역사서는 기술과 정책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기록이라는 권위를 지니지만 그 안에 살아 숨 쉬어야 할 사람들의 삶을 지워버리기 쉽다는 맹점이 있음을 생각하며, 문학 텍스트가 당대 농업인이 추구했던 꿈과 삶을 두껍게 읽어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⁷⁾

삼는다. 부분적으로 한글사용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 또한 반가의 여성이 주 담당층이다. 실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온전한 농업인 즉 출신계층과 종사계층이 모두 일치하는 농업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글로 기록을 남긴 것은 현재까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7) 클리포드 기어츠가 『두꺼운 묘사』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상을 기술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정밀하고 상세한 것이라도 ‘얇은 묘사’이며, 현상이 처한 다양한 맥락과 그 맥락

2. 한문단편에 나타난 조선후기 농업인의 모습

한문단편의 주인공들은 실사와 허구 사이에 존재한다.⁸⁾ 그들의 삶은 다른 문학장르의 인물보다 사실적이고 동시에 작품에 활용되는 문학적 장치는 그들의 바람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본고가 조선후기 농업인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굳이 한문단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작품은 그들의 삶을 허구적으로 그리고 있으나 그 안에 기록된 자취는 사실적이며 그것의 지향은 시대의 진실을 담고 있다.⁹⁾

이튿날 집을 팔아서 집값 5백 냥을 받아, 부모를 모시고 처자를 거느리고 아이중 2명, 계집종 3명과 함께 충청도 청주 고장으로 내려간 것이다. 고장에는 제위답 10결과 초옥 7간에 노비가 10여 명을 헤아리고 소가 세 마리 남아 있었다. … 내 너희들과 10년을 기약하여 전답 100결에 노비 100구, 소 100필하고 50간 집에서 만전의 용돈을 쓰고 매달 포목 300필을 소비하는 부자가 되겠다.¹⁰⁾

한문단편이 주목한 농업인의 모습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는 대체로 ‘경영형 부농’이라 보았다.¹¹⁾ 『귀향』의 주인공 최생은 서울 관료집안의 후손

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고려한 것을 ‘두꺼운 묘사’라고 했다. 조한욱은 과학기술의 글은 얇은 묘사, 인문학의 글을 두꺼운 묘사를 지향해야 하며, 두꺼운 묘사를 지향하는 인문학적 글읽기 방법으로 ‘두껍게 읽기’를 제안했다.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47~60쪽.

8) 임형택, 『한문서사의 영토-실사와 허구 사이』, 태학사, 2013.

9) 조선후기 한문단편을 선별해 교감한 이우성·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상), 일조각, 1973을 분석텍스트로 삼았다.

10) 이우성·임형택, 위의 책, 4쪽.

11) 이우성·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상), 『귀향』·『광작』·『부부각방』·『부농』·『순흥 만석군』·『여생』. 이우성·임형택은 각 편의 해제에서 이들을 이조후기 새로운 인물형으로 규정하며 이를 경영형부농이라 했다. 김동욱도 『귀향』의 주인공에 최생을

으로 연이어 과거에 낙방하자 부모처자를 데리고 전답이 조금 남아있는 청주로 내려간다. 그는 10년을 기약하고 몸소 경작에 참여한다. 논두렁 사이에 나가 농군들을 지도하여 200석을 추수한 뒤 제위답을 모두 팔아 곡식을 사들여 마침내 4천여 석 곡식을 모은다. 그런 다음 남의 땅을 많이 빌려 경작하고 그 소출의 반을 취하는 방식으로 100여 석을 거둬들인다.¹²⁾ 기존논의는 이러한 형태의 농업을 ‘광작’으로 보고, 이것이 18세기 이래 향상된 농촌의 농업생산력에 기대고 있다고 했다.¹³⁾

공은 남의 손을 빌려 땅을 갈면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자기가 힘써 하느니만 같지 못하리라 싶어, 소에 쟁기를 붙여 논에 들어가서 노농을 맞아 잘 대접하여 두둑에 앉히고 쟁기질을 배운 것이다. 논이고 밭이고 갈기를 열 번이나 하여 깊숙이 흙을 일으키니 다른 농부에 비해 바 아니었다. … 밭에는 담배모를 옮겨심기 위해서 거름을 두껍게 깔고서 이랑 위에 무수히 구멍을 뚫고 비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가뭄이 들어 담배 모종이 시들까 염려하여 이른 봄에 길게 가자를 매고 그 아래 담배씨를 파종하여 자주 물을 주었다. 그해 마침 크게 가뭄이 도처에 담배 모종이 전부 말라죽었으나, 공의 담배 모판은 유독 무성했던 것이다. 비가 오자 즉시 옮겨 심었더니, 오래지 않아 담배 잎사귀는 파초처럼 너풀너풀 땅을 덮었다.¹⁴⁾

『광작』에서는 여주의 몰락 양반 허생의 둘째 아들 공(拱)이 부모님 구

경영형부농으로 보았다. 김동욱, 『〈기문총화〉 이야기와 조선 후기 몰락양반층의 향방』, 『반교어문연구』 9, 1998, 242~247쪽.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뒤의 결론에서 살펴볼 것이다.

12) 위의 책, 3~6쪽.

13) 이양법의 보편화와 이익 중심의 실용적 농업관으로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주석 1~3의 연구성과 참조.

14) 이우성·임형택, 앞의 책, 14쪽.

물 후, 글공부 외의 생계방도를 생각지 못하는 형과 동생을 절로 보내 중들에게 얻어먹으며 공부하라 하고 형수와 제수는 친절으로 보내 각기 생계를 잇게 한다. 자신은 부모의 세업으로 남은 보리밭 세 두락과 가대(家垞), 그리고 계집종 하나를 형제들에게 빌리는 것으로 하여 10년을 기한하고 치산을 하겠다고 나선다. 그는 일단 아내의 기물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미역을 사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면화를 구걸하고 그것으로 강원도의 귀리 100여석을 구입해 10년간 먹을 죽거리로 삼는다. 그는 직접 적삼에 잠방이 차림으로 길쌈을 돕고 자리도 치고 도롱이도 엮으며 1년 안에 논 10두락과 밭 하루같이 살 정도가 된다. 또한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노농들에게 쟁기질을 배워 논밭을 갈고 논농사와 밭의 담배 농사로 곡식 100석과 담배값 200궤미, 담배순 값 100냥의 이익을 얻는다. 이리하여 10년 만에 만석군이 된 것이다.¹⁵⁾

『부부각방』에 등장하는 상주의 김생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집이 몰락하여 남의 집 머슴살이까지 한다.¹⁶⁾ 여러 해 모은 새경으로 겨우 장가를 들었는데, 아내가 10년을 기한하여 부부가 각방을 쓰며 치산에 힘쓰자고 제안한다. 부부는 매일 밤 뒤안에 나가 구덩이 예닐곱을 파고 선달에 여러 집 머슴들에게 주머니를 지어주며 주머니값으로 개똥 한 섬씩을 받아, 초봄 해동할 무렵에 구덩이를 전부 개똥으로 채우고 봄보리를 파종하여 100여 짐을 거둔다. 이어 담배를 심어 수십 냥을 얻는 방법으로 마침내 10년 만에 도내의 갑부가 된다.¹⁷⁾ 『부농』에서는 지방 향리의 삶을 조망하는데, 임피의 김 공생은 젊은 시절 풍류남으로 살며 본 아들 83명 중 70여

15) 위의 책, 12~16쪽. 허생 부부의 이야기는 구체적 농업 생산과정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농업인이 견뎌내야 한 삶의 일상적 고난을 포착했다.

16) 후일담에서 김생의 후손이 벼슬을 했다 했으니 그 집안의 원래 내력은 양반가였을 터이다.

17) 이우성·임형택, 앞의 책, 18~19쪽.

명을 데리고 만년에 김제와 만경 즈음으로 이사하여 여러 해 묵어있는 어영청 둔전을 개간하고 메밀을 파종하여 여름에 6,7백 석을 거둔다. 이듬해는 보리·콩·팥 등을 심어 근 천 석을 수확했으며 그 다음해는 작답하고 벼를 심어 전년의 곱절을 수확했다.¹⁸⁾ 『순흥 만석군』의 황 부자는 젊은 시절 안동으로 장가들어 아내와 함께 집앞 한길 가에 돌무더기 목정밭을 개간하여 구덩이 심어 군데를 파고, 길가 주막에서 행인의 대소변을 받아 구덩이에 부은 후 그곳에 옥수수 씨를 뿌려 수십 석을 추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만석군이 되었다.¹⁹⁾ 『여생』의 여생은 남산골의 선비로 집까지 팔아 호구할 정도로 몰락한 신세이다. 어느날 그는 종루 거리의 시전들에게 물어 당대 제일의 부자인 다방골 김동지를 찾아가 만 켤미 돈을 꾸어 하동과 곤양 등지에서 물화를 전매했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모은다. 그런 다음 그 지방 도적떼의 소굴을 찾아가 그들에게 곡식과 농기구를 사오게 한 후, 서남 대해의 섬으로 가서 농사를 지어 소출이 10배가 되었다.²⁰⁾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물들의 원래 신분은 양반 혹은 아전이지만, 생업의 측면에서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각 편에 따라 묘사의 차이가 있으나, 이야기는 대체로 ‘농사를 지어 얼마의 부를 이루었다’로 축약될 수 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농업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보고는 소략하다. 그럼에도 때로는 농서나 유서에 비해 더욱 핏진한 농업인의 농사법과 일상을 포착할 단서를 제공한다.

- (1) ㉠공(拱)은 남의 손을 빌려 땅을 갈면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자기가 힘써 하느니만 같지 못하리라 싶어, 소에 쟁기를 붙여 눈에 들어가서 노농을

18) 위의 책, 22쪽.

19) 위의 책, 25쪽.

20) 위의 책, 100~105쪽.

맞아 잘 대접하여 두둑에 앉히고 쟁기질을 배운 것이다. 논이고 밭이고 갈기를 열 번이나 하여 깊숙이 흙을 일으키니 다른 농부에 비할 바 아니었다. 밭에는 담배모를 옮겨심기 위해서 거름을 두껍게 깔고서 이랑 위에 무수히 구멍을 뚫고 비오기를 기다렸다. 한편 가뭄이 들어 담배 모종이 시들까 염려하여 이른 봄에 길게 가자를 매고 그 아래 담배씨를 파종하여 자주 물을 주었다. 그해 마침 크게 가뭄이 도처에 담배 모종이 전부 말라죽었으나, 공의 담배 모판은 유독 무성했던 것이다. 비가 오자 즉시 옮겨 심었더니, 오래지 않아 담배 잎사귀는 파초처럼 너푼너푼 땅을 덮었다. 『광작』

㉠날이 저물면 부부가 매일밤 뒤안으로 나가서 구덩이를 여섯 일곱을 파고 들어왔다. 그리고 선달이 되자 주머니를 많이 지어서 마을의 여러 집 머슴들에게 나눠주면서 개똥 한 섬으로 그 값을 정했다. 초봄 해동할 무렵 파놓은 구덩이를 전부 개똥으로 메우고 봄보리를 파종했다. 그해 큰 풍작이어서 거의 100여 짐을 거두었다. 또 이어서 담배를 심어 수십 냥 돈을 손에 쥔 것이다. 『부부각방』

㉡집 앞의 한길 가에 돌무더기 목정밭을 개간하여 구덩이 십여 군데를 파고, 길가 주막에서 행인의 대소변을 받아 구덩이에 부었소. 그뒤 실인은 옥수수 씨를 뿌리고, 나는 흙으로 덮어서 하루같이 남짓을 파종했더니, 옥수수가 무성하여 당년에 수십 석을 추수하지 않았겠소. 『순흥 만석군』

(2) ㉢봄갈이는 늦은 것이 좋고 갈갈이는 이른 것이 좋은 법이다. 늦게 하는 것은 봄 얼음이 점점 풀려 지기(地氣)가 통하기 시작하여 비록 굳은 땅이라 하더라도 또한 쟁기질하기가 좋기 때문이고, 일찍 하는 것은 일기가 춥지 않고 온화한 양기(陽氣)가 장차 땅속에 감혀버리기 전에 하려는 것이다. 『한정록』

무릇 개간한 황무지는 잡초(野草)를 태워버리고 쟁기로 갈고서 먼저 지마(芝麻)를 한 해 심어 풀이나 나무뿌리가 모두 다 없어진 다음에 오곡(五穀)을 심으면 풀이 막는 폐단이 없다. 대개 지마가 초목(草木)에게는 마치 오금(五金 다섯 가지 금속, 즉 금·은·구리·철·납)에 대한 주석(錫)과 같이,

서로 견제 작용을 하는 성질이 있다. 『신은지』 『한정록』

적박한 밭은 녹두를 갈고서 무성해지기를 기다렸다 갈아엎어 버리면, 가리지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으며, 적박한 땅도 좋은 밭으로 변한다. 무릇 밭을 갈게 하는 방법은 녹두가 제일이고 소두(小豆)·호마(胡麻)가 다음인데, 5~6월중에 씨를 뿌렸다가 7~8월에 쟁기로 갈아엎어 죽이고, 봄 곡식 심을 밭을 만들면 그 묘(畝)에서 10석을 수확하게 된다. 『거가필용』 『농사직설』

못자리는 3~4번 쟁기질을 해야 하고, 모를 심을 데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농사직설보』

- 『산림경제』 「치농」

㉠거친 땅을 개간하는 데는 쇠쓰레와 쇠스랑으로 두 번 고르게 쓰리고 기장이나 조·피 종류를 뿌리고, 다음에 흙을 덮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두 번 하면 이듬해는 곡식 심는 밭이 된다. … 대체로 밭을 좋게 만드는 법은 녹두를 심는 것이 가장 좋고, 팔이나 참깨가 그 다음이다. 이것은 모두 5·6월에 씨를 뿌리고, 7·8월에 갈아엎었다가 봄곡식을 심으면, 1묘에 10석은 수확할 수 있다. 이것은 거름의 효력이 숙잠(熟蠶)이나 누에똥과 비슷하다. 대체로 추수 후에 소의 힘이 부족해서 즉시 추경(秋耕)을 하지 못하면, 기장·검은 기장·수수·차조 등을 거둔 자리에 인분을 퍼부어 둘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항상 윤택해서 흙이 굳지 않을 것이니, 초겨울에 소로 갈아서 흙덩이를 부수고 두둑을 뭉개어주면 가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제민요술』

봄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 흙이 딱딱하고 덩어리져서 윤습하지 않으면 한해가 다 가도록 곡식을 심을 수 없으니 인분을 쓰지 않고는 해토할 수 없다. 『범승지서(汜勝之書)』

옛 농사법에는 한 번 갈고 여섯 번 고르게 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만 깊이 갈 줄만 알고 흙을 부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부수는 것이 부족해서 흙이 거칠고 덩이가 많으면 파종한 뒤에 비록 썩이 나더라도 뿌리가 흙덩이 위에 있어서 흙에 밀착되지 못하므로 한재(旱災)를 견디지 못하고 곧 말라 죽으며 충해도 잘 입는다. 『종시직설(種蒔直說)』

대체로 분종(糞種)이라는 것은 붉은 빛의 단단한 토질에는 소의 똥을 쓰고, 붉은 빛의 토질에는 양의 것을 쓰고, 기름진 토질에는 고라니의 것을 쓰고, 물이 고였던 토질에는 사슴의 것을 쓰고, 염분이 있는 토질에는 오소리의 것을 쓰고, 단단한 땅에는 분(糞, 삼씨)을 쓰고, 가볍고 무른 흙에는 개의 것을 쓴다. 『주례』

추수한 뒤에 양장(糧場)을 매만지되, 맨 위에 벧짚을 가져다가 한 곳에 쌓아두고, 날마다 소의 다리 밑에 세 치 두께로 깔아두었다가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서 다른 곳에 쌓아두고, 먼지와 같이 새것을 깔아준다. 이렇게 한겨울 동안 계속하면 두 살짜리 소 한 마리가 밟아낸 것이 30수레 분의 거름이 된다. 『제민요술』

- 『과농소초』 「경간(耕墾)」·「분양(糞壤)」²¹⁾

(2)의 ㉠은 홍만선(洪萬選, 1642~1715)이 18세기 초에 편찬한 『산림경제』 「치농」편의 내용이다.²²⁾ 여기서는 쟁기질의 시기와 경우, 그 효용 등과 아주 드물게 못자리에 하는 쟁기질의 횟수를 적었다. 이러한 설명은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매우 친절한 매뉴얼로서, 기술전수자의 입장에서 적은 듯한 느낌을 준다. 반면, 한문단편 「광작」은 실제 쟁기질을 하는 과정의 전후를 농업인의 입장에서 서술했다. 특히 처음 농사를 접하여 쟁기질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파악되는 당시의 농업환경을 세심히 말해준다. 「광작」의 주인공 허공이 직접 쟁기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비 절감 때문이다. 이는 당시 쟁기질을 위한 노동매매가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더불어 쟁기질을 배우는 방식은 매뉴얼 즉 농서를 통한 학습이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한 노농에게 부

21) 박지원, 최홍규 역, 『국역 과농소초』, 아세아문화사, 1987, 98~117쪽.

22) 『산림경제』 「치농」은 이전의 『농사직설』(申淵의 『농가집성』)과 허균의 『한정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16-17세기에 걸쳐 발달된 농업기술의 양상을 기록한 농서의 성격을 지닌다. 염정섭, 앞의 논문, 183쪽.

탁하는 것이다. 그들을 두둑에 자리 앉히고 그 앞에서 하나하나 시행해보며 쟁기질을 익혀간다. 구체적인 쟁기질 횟수 또한 농서가 기록한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데,²³⁾ 이는 이들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이론상의 평균보다 척박한 땅임을 알게 한다.

『산림경제』는 척박한 밭을 개간할 때 녹두와 소두, 호마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의 기록은 『산림경제』가 참고한 농서 중 중국서가 아닌 국내에서 제작된 『농사직설』의 인용이라는 점에서 당시 조선의 실제 농법에 가까울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가난한 농민에게 밭의 개간을 위해 녹두와 소두를 심었다 같이엮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다. 이 책의 기록은 당시 농업기술의 발달 정도와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실상을 반영하지는 못한다.²⁴⁾ 『산림경제』는 16세기부터 17세기를 거쳐 이룩된 농업기술의 향상을 18세기 초라는 시점에서 종합 정리한 것이고, 한문단편은 18세기말-19세기적 농업환경을 묘사하고 있기에²⁵⁾ 양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18세기 말(1799)에 저어지고 19세기에 널리 읽힌 박지원(1737-1805)의 『과농소초』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2)의 ㉠은 『과농소초』의 「경간」과 「양분」 부분이다.²⁶⁾ 『과농소초』는 토질에 따라 분종을 나누고 있으나, 한문단편은 가장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는 개똥과 인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는데 이것이

23) 농서는 다른 농사일에 비해 쟁기질 횟수에 대해 매우 드물게 기록하고 있다. 『산림경제』 「치농」 편에는 단 한 번 나온다.

24)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현재 개발된 치료법이나 기술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보고와 대중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한다.

25) 『부농』에서 김공생은 갑을 양년의 흉년을 겪는데, 이때는 갑술년(1814)과 을해년(1815)이다. 이우성·임형택, 앞의 책, 22쪽.

26) 『과농소초』는 주로 중국의 농서를 참조하였다. 『제민요술』은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종합농서로 후위(後魏)의 가사협(賈思勰)이 편찬한 것이다. 김영진, 「<제민요술> 해제」, 『농업사연구』 6권2호, 한국농업사학회, 2007, 205쪽.

실제 농업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농서와 한문단편에서 그리는 농업인과 농업환경의 차이는 농서가 이야기하는 이상적 농업수준과 실제의 거리가 상당함을 알게 한다. 그동안의 농서 연구는 조선후기 우리의 농업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며, 그것을 근거로 대규모의 광작과 기업형 농업을 운용하는 경영형 부농의 모습을 상상하고 믿게 하였다. 당대 최고의 농업기술수준을 담아낸 농서에서는 여전히 개똥과 행인의 대소변을 모아 구덩이에 심어 밭을 개간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3. 조선후기의 농업상 : 경농(經農)과 치농(治農)

기존 연구는 한문단편에 나타나는 농업인에 대해 조선후기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새로이 등장한 인간상’²⁷⁾이라고 평하였다. 무엇이 ‘새로운 인간상’인가? 선학은 이에 대해 ‘경영형 부농’이라 답하였다. 이들은 농사를 통해 부를 추구하는 경영인의 마인드를 지닌 인물이다. 즉 본격적인 ‘경농(經農)’을 지향하는 인물들인 것이다.²⁸⁾ 이는 이전까지의 농업인이 지녔던 농업관에 변화가 나타남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농서·경제서 연구들이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농업기술 및 농업환경의 실용적 변화가 전제된 주장이다. 이는 철저한 ‘생업/직업으로서의 경농(經農)’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러나 한문단편이 그리는 농업상은 그 지

27) 이우성·임형태, 앞의 책, 3쪽.

28) 경농(經農)은 농업경영을 뜻하는 말로, 기존연구가 경영형 부농이라 규정한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오늘날 영농(營農)이라는 말이 지닌 어기와 당시 사회상에 대해 기존 연구가 ‘경영형 부농’이라 말한 것이 지닌 역사적 사회적 함의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경농(經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향이 농서류와 온전히 같지는 않다. 양자를 비교하면 재미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농서를 보면, 농업의 기술적 측면을 다루며 실용적 경농관을 주장하는 부분의 항목명을 ‘경농’이라 하지 않고 ‘치농(治農)’이라 적시하고 있다. 18세기 초의 『산림경제』뿐 아니라 18세기 후반의 의관 유증립이 편찬한 『증보산림경제』, 19세기 초반 한석효(韓錫敎)가 편찬한 『죽교편람(竹僑便覽)』²⁹⁾이 그러하다. 내용의 실상은 경농 방식임에도 굳이 ‘치농’이라 한 것이다. 경농과 치농은 모두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공유한다. 그러나 그 어의의 기원과 어감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후술하겠지만 경농이 농사짓기를 통한 개인의 재산 축적 과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치농은 농사짓기가 공동체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을 지니기 때문이다. 농서가 경농의 내용을 다루며 치농이라 명명한 것은 양자의 연계와 균형을 지향한 것일 터이다.

한문단편 또한 서사의 전반부에서는 경농을 추구하는 농업인의 면모를 부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서사의 전체를 대표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치산의 시작은 경농이지만 그 완성은 경농 이후의 과정에서 구현되는데, 후반부 과정을 전반부의 경농과 구분하면 ‘치농’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작품의 전반부에서 농사는 사적 재산 축적의 방법이지만, 후반부는 농사의 과정을 나눔과 연결하며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보면 치농은 경농의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극복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농서와 한문단편은 경농이 부상하는 시기에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경농과 치농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제 한문단편에 나타나는 치농의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자.

29) 염정섭, 「19세기 전반 전라도 능주지역의 벼농사 기술-『죽교편람』 「치농편」을 중심으로」, 『농촌경제』25, 2002.

그 이듬해는 여름엔 가뭄이 들고 가을엔 홍수가 휩쓸어 들에 서 있는 곡식이 없는 지경이었다. 시절이 대기근이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늙고 병든 사람이 구렁에 쓰러지고, 젊은 사람은 유망(流亡)하여 열에 아홉 집이 빈 형편이었다. 나라 한 섬 가격이 열 냥이고, 쌀은 이보다 배가 되었다. 늙은 종들이 저장된 곡식을 판매하자고 졸랐으나 최생은 듣지 않고, “가서 동네 부모(父老)들을 불러 오너라.” 불러온 사람들을 뜰 밑에 세우고 물어보았다. “우리 이웃에 거의 굶어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되요?” “시방 누가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땅 한 평 없는 이가 많은 데다 토지가 있어 소를 세우고 남녀 일손이 많아 땅에 엮드려 힘껏 농사를 지어서 1년을 걱정 없이 살아가든 사람도 모두 부황이 들어 죽어가는 판이지요. 이네들은 금년 농사가 여름엔 가뭄으로 타고 가을엔 물에 잠겨 왕왕 논바닥에 세워둔 채로 낫도 대보지 못한 때문입지요.” “허허! 모두 죽게 되다니……. 내게 양곡이 얼마간 있으니, 비록 약소하나 여러분들을 구출할 수는 있겠소. 우리 고장 사람이 전부 굶어죽는 것을 어찌 차마 보고 앉았겠소. 아무로부터 아무까지 식구의 다소와 호구의 대소를 기록하여 보여주시오.” 부모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는 것이었다. “이야말로 생불(生佛)이십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인근 사람들에게 알려 각기 호구를 기록하여 최생에게 바쳤다. 약정한 날짜에 기록된 500여 농가의 1,300여 명을 모두 불러 곡식을 나누어주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굶주림을 근심하지 말고 본업에 힘쓰도록 하시오.” 드디어 매월 호구에 따라 양식을 배급하여 굶주리지 않도록 했다. 소를 팔아 고삐를 놓친 농가에는 소를 사주고 농량(農糧)을 대주며, 또 500여 농가에 오곡의 종자도 지급한 것이다. 그리하여 500여 농가가 합심 협력하여 농사를 때맞춰 부지런히 힘쓰고 서로 술선 권면하였다. … 그 고장 500여 농가들은 추수가 끝나자, 공론이 돌기를 “우리네 이 곡식은 모두 최씨 덕이라. 500여 농가 1,300여 구가 올 봄·여름철 열에 아홉 집이 비던 때 우리가 굶주림을 면하고 삶을 온전히 하여 부모·형제·처자식과 단란하게 지내며 앞대에서 노래 부르게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덕인가? 사람이 이 같은 골육지은(骨肉之恩)을 입고도 보답하기를 생각지 않으면 개돼지도 우리가 남긴 찌꺼기를 먹지 않을 것이네.”

너나없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구 말구!” 그 중 노숙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동민들을 모아 놓고 제안을 하였다. “최씨댁 곡식은 바로 그 양반 제위전 10결과 서울집을 처분한 돈이라. 지난 봄 곡가로 치자면 4천여 석으로 4만 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매출하지 않고 우리들을 살렸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의인이고 어진 분이시라. 우리가 기껏 4만 냥으로 쳐서 갚아드린다면 너무 박하지요. 의당 6만 냥으로 상환해야할 것이요.” 모두들 ‘웁소’하였다. 이에 호구의 수를 쪽 적어놓고 평상시의 식량과 농량 및 사준 소 값 등을 추곡가로 환산하니 100전이 곡식 20두였다. 도합 6만여 석이 되는 것이었다. … 10년 사이에 최생은 재화가 넘쳐흐러 애초에 노비들과 약조했던 대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노비들에게 상으로 각기 100냥을 주었다. 500여 호의 백성들은 흉년이 들면 언제나 최생에게 도움을 받았다. 『귀향』

경농을 통해 4천 석지기가 된 최생은 이듬해 여름가뭄이 들고 가을홍수가 나서 대기근이 들자, 피곡 가격이 한 섬에 열 냥으로 오르고 쌀값은 그 곱절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팔지 않는다. 매매를 부추기는 중들의 말에도 이랑곳 않고 동네의 부로를 불러 자신의 곡식을 굶어죽게 된 이웃을 구휼하는 데 쓰도록 한다. 그가 구휼한 이는 500가구 1300여 명이다. 최생은 그들에게 굶주림을 근심하지 않고 본업에 힘쓰라고 하며, 양식을 분배하고 소를 사주기 위해 자신의 전답을 팔았다. 그리고 자신은 남의 집 땅을 빌려 직접 농사짓는 것이다. 500가구는 무사히 추수를 마친 후, 공론을 모아 최생이 도와준 4천 석의 가격을 4만 냥으로 계산하고 그에 감사의 이자를 더하여 도합 6만 냥으로 갚는다. 최생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기근이 들었을 때의 곡식가는 그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는 이웃들의 말에 부득이 곡식을 받는다. 이후 최생은 이것을 가지고 곡식을 매입하기도 하고 이웃의 장사밑천도 대주면서 마침내 10년 사이에 처음의 약속한 바를 이루게 된다. 결국 최생의 10년 치산 목표는 기술적 경농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다스려주고 안정되게 만들어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삶은 경농을 포함하는 근본적 개념으로서의 치농(治農)이라 하겠다.

치(治)란 다스리다, 안정시키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치료하다, 구휼하다, 바로잡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³⁰⁾ 농사의 처음 성격은 치농이었다. 치농의 농사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근본으로, 이는 개인적 생업/직업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운용되는 본업이었다. 때문에 과거의 농업은 개인차원의 생업이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규범의 구현이었다.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이들 또한 그러한 정신 하에서 농업에 임했기에 개인적 부를 추구하는 ‘경농’에 주목하지 않았다. 농사에 관한 매뉴얼은 이 익경영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영을 위해 존재했다. ‘국가가 백성을 부릴 때 농한기에 하라’는³¹⁾ 말은 농업의 주기가 백성을 다스리는 시간의 기준으로 작용했음을 말한다.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자 근간이라’는³²⁾ 말은 농사를 다스린다는 것이 단순한 생업의 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곧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상징임을 알게 한다. 조선전기 나라의 안정책으로 국가차원에서 주력한 것이 농서편찬임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³³⁾

30) 치산(治産)도 원래는 재산을 운용하는 모든 것, 즉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 구현되는 정신과 자세를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돈을 버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축소가 이루어졌다.

31) 『논어』 「학이」,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32) 『맹자』 「양혜왕」 상,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漁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漁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33) 고려말과 조선초에 사회재건을 꿈꾼 사대부가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농업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다스리는 근본임을 말한다. 이에 뛰어난 국왕들은 국가의 힘을 동원하여 농서를 제작하고 농업환경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이 없다’는 말처럼 농업은 백성들의 항심을 지지해주는 기반이

그러나 양란이후 국가가 국민의 본업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자, ‘국가
가 보장해주는 본업’이 아니라 ‘각자가 책임지는 생업’으로 농업관이 바뀌
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본업의 개인화 현상’으로서,³⁴⁾ 오늘날 우리가 인
식하는 직업 개념의 시작일 터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차원이 아닌 개인차
원에서 농서편찬이 이루어지고, 농사를 통해 사적 이익증대를 추구하는
현상이 등장한다. 그러나 농서를 편찬한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
이 합리적 경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실용적 기술서를 쓰면서도 그 근본
정신인 치농을 잃지 않고자 했다. 즉 나라가 보장하지 못하는 본업을 개
인차원에서라도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실은 것이다. 기실 먹고사는 문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치(治)’³⁵⁾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문단편의 주인공들은 경농의 과정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경제
적 약자에게 치농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들이라 하겠다.

이에 그는 강원도의 귀리 100여 석을 사서 10년간 죽만 먹기로 굳게 약속
을 정했다. 여중에게는 한 사발을 주고 그들 부처는 반 사발을 들면서 여중
에게 말했다. “주름을 정 견디기 어려우면 네 마음대로 나가거라.” 여중은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상전께서 죽음으로 맹세하고 치산을 하시는데, 저
라고 어찌 굶주림을 두려워하여 버리고 가겠습니까.”…10두락 소출의 곡식
도 역시 100석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재산이 매달 불어나고 매해 늘어나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정도였다. 5, 6년이 못되어 노적이 충만하고 논밭이 연
달아서 10리 안통의 농민들은 허공의 집에 의지하지 않는 자가 없이 되었다.
사방의 소작인들이 주찬과 어육으로 인정을 쓰니 밥상에 고기반찬이 떨어지

었던 것이다.

34) 이는 토지지배의 실질적 영향력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것과도 연결될 것이
다.

35) 이때의 치(治)를 오늘날 통용되는 정치 혹은 국가차원의 다스림이라는 뜻에 한정해
서는 안 된다. 삶을 운용하는 방식과 자세가 치(治)의 뜻이기 때문이다.

지 않았으나 여전히 귀리죽 반 사발은 더하고 덜함이 없었다. 『광작』

『광작』의 허생은 농사를 시작하며 10년간은 귀리죽을 먹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물론 이는 그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귀리죽이나마 자신은 반 사발을 먹고 여종은 한 사발을 채워준다. 고용주로서 힘든 고생을 함께 하는 고용인에 대한 마음씀이 남다르다. 허생은 또한 굶주리며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종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생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자유로이 나가 살 것도 제안한다. 그러나 여종은 허생의 배려와 결심에 감복하여 허생의 처사를 적극 돕는다. 이는 허생의 경농이 일차적으로 허씨집안의 재산축적을 목적으로 삼는다해도, 그 근본지향은 주위 사람들을 아우르는 치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가 수족이 많도록 부지런히 처산을 하는데, 경영하는 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습디다. 그리고 싸라기 한 톨이라도 천금같이 아끼기로 가법(家法)을 삼아서, 친기를 장인어른의 말씀과 다름없이 모신 터였고, 기어이 만석을 채운 연후에 재물을 쓰기로 작정했는데, 9천 석을 받은 지 근 10년에 1천 석을 더하기야 아주 용이한 일일 듯 싶었소. 그런데 혹은 홍수로 혹은 가뭄으로 손실이 나든가 아니면 의외의 화재를 당하든가 하는 등으로 소기의 만석을 채우지 못 했드라오. 어제 우리 내외가 상의하기를 ‘조물주가 만석을 채워주실 의향이 없으신데, 우리 양주가 나이 칠십 줄인 지금에 이르러 시원스럽게 써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눈을 감고 보면, 왕장군 곳간의 귀신을 면하지 못할 터이라. 이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찾아오는 손님을 접대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기를 내일부터 시작하여 죽기 전에 잘 사는 부자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옳겠다.’고 하여 문지기 2명을 세워두고 손을 인도하며, 항상 성찬을 준비하여 불시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하게 했던 거라오.

그 첫날 귀객이 남 먼저 오셨으니 실로 황재수가 있는가 싶소.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뽑히겠소. 노부가 반드시 귀하게 되실 분에게 어찌 돕기를 아끼겠소.” 그러고는 즉시 수노(首奴)를 불러 분부하는 것이었다. “이 서방님은 이웃의 아무 생원어른의 서랑이시다. 이번 과거를 보러 가시는데 노자가 없으시니, 곳간에서 돈 50냥을 꺼내드리고, 또 말 한 필을 내어 잘 나가시도록 해라. 이제 노자의 근심은 덜었으나, 집안 식구의 주름을 걱정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짓는 글에 생각을 다 퍼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네가 풍기 인근의 마름에게 내 표지(標紙)를 써 보내 30섬의 벼를 실어가서 본댁 식량을 하시도록 해라.” 최생이 천만 뜻밖의 후의에 감사를 드리자, 황부자는 말했다. “많이 쌓아놓고 베풀지 않고 나중에 무엇하겠소? 재산이란 하늘이 낼 때부터 모였다가는 흘러가는 법이니, 주인이 바뀌지 않는 재물이 세상에 어디 있으리오. 이 집도 언젠가는 아마 축밭이 되겠지요. 귀객이 현달한 뒤 혹 이곳을 지나시면, 한잔 술을 부어 노부의 혼을 위로해주시기 바라오.” “이같이 큰 재산이 대를 물려간들 즐지에 망할 이치야 있습니까?” 최생의 말에 황부자는 또 말했다. “속성속패는 이치의 당연함이라도.” 『순흥 만석군』

순흥의 만석군은 평생을 경농에 힘쓰며, 만석을 채우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9천석을 이룬 후 나머지 1천 석을 채우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도 의외의 재난으로 꼭 손실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만석군 부부는 ‘남에게 베풀기’로 결심한다. 만석을 채우는 데만 보낸 70평생이 기실 큰 의미가 없으며, 남은 생애에 만석을 채운다 한들 ‘왕장군 곳간의 귀신’이 되는 슬픔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어서이다. 즉 축적만을 지향한 경농은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나누고 베풀기로 이어지지 못하면 진정한 만석군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에 만석군 부부는 항시 성찬을 준비하여 사람들을 대접하고 과거보는 유생의 노자도 내어준다. 9천석까지는 아무리 곳간에 쌓이 그득해도 부족

한 1천석이 내내 마음에 걸려 허무했지만, 9천석을 꺼내어 베푸는 순간 그들의 삶은 진정한 만석군의 부를 즐기는 삶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한문 단편은 궁극적으로는 치농과 경농, 이 양자의 균형에 대한 추구를 보여준다. 이는 조선후기 농업상의 진실된 일면이자 지향이라 하겠다.³⁶⁾

4. 나가며 : 한문단편의 '경영형부농'론에 대한 재론 가능성

본업의 개인화·생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업환경의 개선과 기술발전 및 농산물의 매매 등이 몇몇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후기의 보편적 농업환경이 아니고, 농업인의 대체적 실상과도 거리가 있다. 한때 이른바 경영형부농설이 풍미하였고³⁷⁾, 문학연구 또한 이에 영향을 받아 주저없이 한문단편의 농업인을 경영형부농으로 규정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귀향」의 최생이다. 그러나 최생을 경영형부농으로 보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최생의 경농 과정은 제위전 10결을 직접 농사짓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규모 자작농의 모습이다. 경농의 결과로 모은 4천 석과 그 전담마져 팔아 마을 사람 구제에 쓴 후에는 혼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하고 그 소출의 반을 취했는데 이는 소작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소작료를 제공하는 단순 소작인의 모습일 뿐이다. 광작을 경영하는 계층은 임노동자나 소작농을 고용해서 자신의 대농장을 일구는데, 작품의 최생은 이러한 모습과 거리

36) 조선후기 농서편찬자와 한문단편의 작가로 추정되는 계층이 모두 다소 세력이 미약한 양반계층임을 생각할 때, 이들이 지닌 표리관계와 지향의 공통점의 발견은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37) 경영형부농설은 우리사회경제의 내재적발전론을 주장하며 등장한 것으로, 김용섭의 『조선후기농업사연구』1·2가 대표서이다.

가 있다.

기존연구는 경농이 부각된 작품 전반부에 더큰 무게를 두고, 여기에 조선후기의 몰락양반이 생업으로서의 농업에 종사하게 된 상황과 농서 연구가 주장하는 향상된 기술력을 임의로 연결하여 한문단편의 농업인이 광작을 행하는 경영형부농이라 주장한다. 이는 농업사 연구에서 한때 유행했던 경영형 부농론 즉 “봉건지주층의 전작지를 차경(借耕)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는 농민층으로 소위 자본가형 차경농에 가까운 농민층”이 “조선후기에는 그와 같은 농민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³⁸⁾ 있었다는 주장에 견인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농업사 연구성과는 이것의 오류를 지적하고,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존재는 극소수이며, 조선후기는 농업 집약화와 경작토지의 영세균질화를 특징으로 하는 소농사회(가족적 소농)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³⁹⁾ 선입견 없이 한문단편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객관적으로 독해하고 이해한다면, 작품이 그리고 있는 농업인의 실상은 소규모의 토지 소유자의 치농임을 알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경영형부농으로 보았던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38) 김용섭, 『조선후기 경영형 부농과 상업적 농업』, 『조선후기농업사연구』2, 일조각, 1971, 223쪽(염정섭, 『조선후기 내적발전과정 연구와 중세사회 해체론의 동거』, 『한국사연구』 147, 317쪽 재인용).

39) 염정섭은 경영형부농을 개별자가 아닌 하나의 농민계층으로 보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염정섭, 위의 논문, 318쪽. 동아시아 사회가 공히 소농사회였음을 주장하는 논의로는 미야지마히로시(宮嶋博史), 『동아시아 소농사회론과 사상사 연구』, 『한국실학연구』 5, 2003, 121-149쪽. 김용섭의 논의에 회의하며 조선후기에 특권적 대토지 소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소토지 소유가 증가함을 밝힌 논의로는 미야지마히로시, 『유교의 제민사상과 소농사회론-조선후기 대구 조암방의 사례』, 『국학연구』 14, 2009, 289~318쪽.

참고문헌

- 이우성·임형택, 『이조후기한문단편』1, 일지사, 1973, 3~468쪽.
- 박지원, 최홍규 역, 『국역 과농소초』, 아세아문화사, 1987, 1~233쪽.
- 김동욱, 「〈기문총화〉 이야기와 조선후기 몰락양반층의 향방」, 『반교어문연구』 9, 1998, 241~266쪽.
- 김영진, 「〈제민요술〉 해제」, 『농업사연구』 6권2호, 한국농업사학회, 2007, 205~208쪽.
- 미야지마히로시(宮嶋博史), 「동아시아 소농사회론과 사상사 연구」, 『한국실학연구』 5, 2003, 121~149쪽.
- _____, 「유교의 제민사상과 소농사회론-조선후기 대구 조암방의 사례」, 『국학연구』 14, 2009, 289~318쪽.
- 박기수, 「한국과 중국의 자본주의 맹아론」, 『사림』 28, 2007, 203~248쪽.
- 엄정섭, 「조선후기 내적발전과정 연구와 중세사회 해체론의 동거: 『조선후기농업사연구(1)-농촌경제·사회변동』, 『조선후기농업사연구(2)-농업변동·농학사조』」, 『한국사연구』 147, 2009, 307~333쪽.
- 이순자·허양, 「이조한문단편에 나타난 물량적 가치관-근대화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15, 1975, 108~124쪽.
- 정승진, 「김용섭의 원축론과 사회경제사학의 전개: 『조선후기농업사연구』1·2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7, 2009, 335~356쪽.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6~162쪽.

ABSTRACT

Farming and Farmer in Chinese short story in late Joseon Dynasty
- Running and Ruling Agriculture

Kim, Soo-young

This study contemplates farming and farmer in Chinese short story in late Joseon Dynasty. In the process, I expect literature text would contribute to finding images of farmers not captured by agricultural books. Farmers in Chinese short stories are generally of noble birth(兩班, Yangban). At this point, we can find farmers not predestined but professional. Strictly speaking, occupation or job is put focus on professional farmers not predestined farmers. Today it is so natural to separate origin from job. Meanwhile, the classification of the traditional four classes of society(士農工商, scholars, farmers, artisans and tradesmen) makes us equate vocational farmer with familial farmer. In that farmers in Chinese short stories show us the process of division vocational from familial farmer, it foretells, in today's point of view, 'the birth of a job'. The short story records farmers' whereabouts literarily, but their attitudes in life were seen sincerely.

It's because the image of agriculture of the day contains completely different side from that of history books, philosophy books, or agricultural books.

Preceding researches defined farmers in Chinese short stories as a wealthy managerial peasants. However, the fact in each story comes near to smallholders rather than wealthy managerial peasants. In the first half of the work, the process of running agriculture(經農) was stood out, but the concept of ruling agriculture(治農) was emphasized in the second half. Preceding researches put more weight on the first half. They randomly connect ruined Yangban's engaging in farming with advancement of technology written in agricultural books and assert that farmers in

Chinese short stories are wealthy managerial peasants. It is undeniable that it is caused by the theory of wealthy managerial peasants, a temporary vogue. Recent researches on agriculture history are pointing out mistakes of the theory of wealthy managerial peasants and verifying that late Joseon was the society of agriculture integration or small homogenization of farming land. If we read or understand objectively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the story, the true life of farmers in the work is also the ruling agriculture by a small scale landowner. So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about the view which farmers in Chinese short stories are wealthy managerial peasants.

Key Words Chinese short story, farming, farmer, wealthy managerial peasants, running agriculture(經農), ruling agriculture(治農)

논문투고일 : 2014. 10. 30

심사완료일 : 2014. 12. 3

게재확정일 : 2014. 12. 3

